「2022년 지방직 9급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 및 해설(5)

| 노범석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8.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중략)…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기〉

ㄱ.일본에서 순국하였다. ㄴ.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다.
ㄷ.「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ㄹ.연해주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 ④	출제영역 : 안중근
해설	제시된 자료는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체포된 안중근이 재판을 받을 때 남긴 법정 진술의 내용이다. ㉢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처단 후,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그러나 결국 완성하지 못한 채 사형당하였다. ㉣ 안중근은 연해주에서 이범윤과 함께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오답분석	㉠ 안중근은 뤼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10년 3월 32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일본에서 순국한 인물로는 최익현, 이봉창, 윤봉길 등이 있다. ㉡ 한인 애국단은 안중근 사망 이후인 1931년에 조직되었다.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인물로는 이봉창, 윤봉길 등이 있다. 또한 ㉠와 ㉡, 둘 다 해당되는 인물로는 한인애국단 단원인 이봉창, 윤봉길이다.

(2022년 해법국사 2권,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과 을사의병, 632~633쪽)

19.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① 이 법률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②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③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④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가 체포되었다.

정답 : ②	출제영역 : 반민족 행위 처벌법
해설	제시된 자료는 19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내용이다.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 9월에 만들어졌으며, 농지개혁법은 1949년에 제정된 법령이다. 따라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진 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오답분석	① 제헌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였다.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구성되었고, 특별 재판부(단심)가 설치되었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친일 경력을 가진 고위 경찰 간부 노덕술 등이 체포되었다.

(2022년 해법국사 2권, 건국 초기 남한 정부의 과제, 820쪽)

20.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① (가)는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였고, (나)는 '국혼'을 강조하였다.
② (가)는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고, (나)는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③ (가)는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고, (나)는 식민 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④ (가)는 황포 군관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나)는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정답 : ④	출제영역 : 의열단(김원봉 · 신채호)
해설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의 내용이다. 신채호는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여 의열단의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는 김원봉이고, (나)는 신채호다. ④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의열단원들은 무장 투쟁을 위한 군대 양성을 목적으로, 황포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았다. 또한,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하여 일본의 식민 사관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오답분석	① 김원봉의 주도 아래 조선 의용대가 결성된 것은 맞지만, '국혼'을 강조한 사람은 박은식이다. ②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운 사람은 이동녕 · 이회영 등이고, 형평사를 창립한 것은 백정 출신인 이학찬이다. ③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한 사람은 여운형이고, 식민 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한 사람은 백남운 등이다.

(2022년 해법국사 2권, 의열단, 740~741쪽)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기획 www.gosipan.com